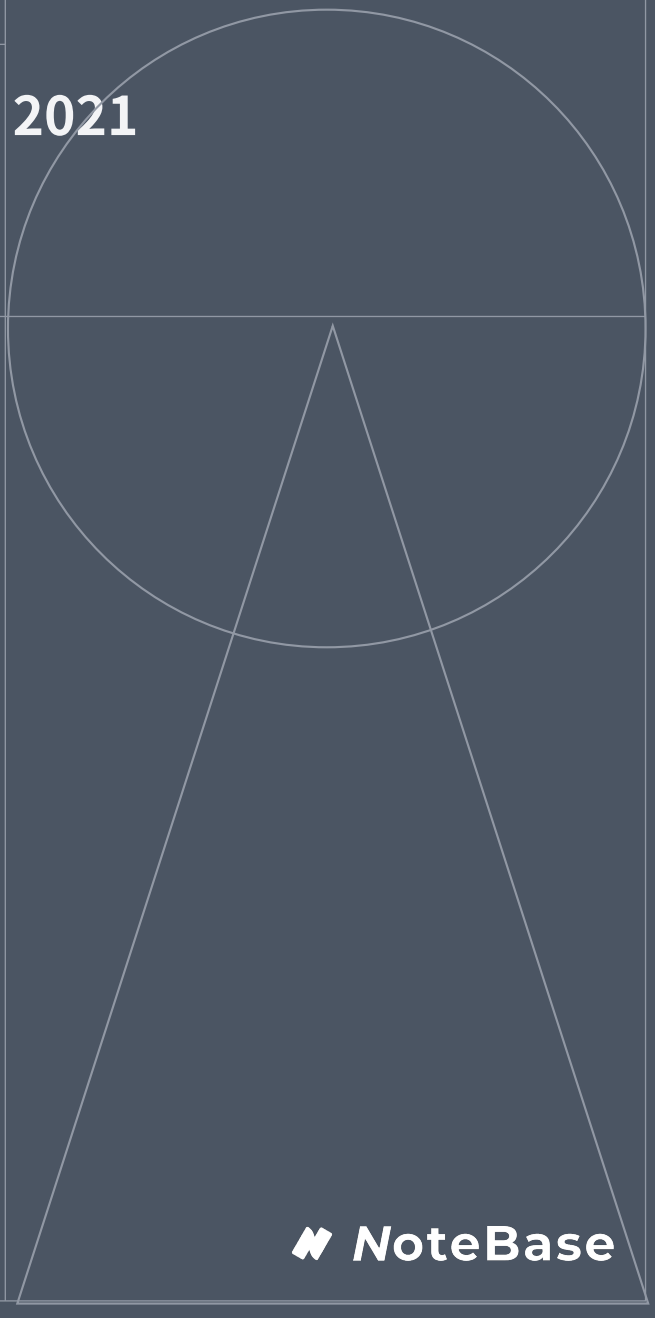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1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1

문 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앉혔다.

②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③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④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낱말 가운데 문맥에 맞는 표준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치다는 밥·떡 따위를 만들려고 솥이나 시루에 넣는다는 뜻이고, 앉히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앉게 한다는 뜻이다.
조리다는 양념한 고기·생선·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 양념이 배게 한다는 뜻이다.
달리다는 능력이나 수량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 뜻의 '딸리다'는 비표준어이다.
붓다는 부풀어 오르거나 성이 나 뾰로통해진다는 뜻이고, 불다는 양이나 분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앉혔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앉게 했다는 뜻이다. 솥에 쌀을 넣어 밥을 짓는 상황이므로 '쌀을 앉혔다'가 아니라 '쌀을 안쳤다'가 맞다.
② O: '조렸다'는 양념한 재료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 양념이 배게 한다는 뜻이다.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리는 상황과 맞는다.
③ X: 능력이나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은 '달리다'이다. '실력이 딸리니'가 아니라 '실력이 달리니'가 맞다.
④ X: 화가 나서 얼굴이 부풀어 오르거나 뾰로통해진 상태는 '붓다'를 쓴다. '잔뜩 불어 있었다'가 아니라 '잔뜩 부어 있었다'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딸리다'는 일상에서 '모자라다'의 뜻으로 자주 쓰여 헷갈리지만, 표준어는 '달리다'이다. ④도 양이나 분량이 늘어나는 '불다'와 얼굴이 부어오르는 '붓다'를 바꾸어 쓴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솥이나 시루에 음식 재료를 넣는 문맥이면 '안치다', 양념이 배도록 바짝 끓이는 문맥이면 '조리다'를 쓴다. 능력·수량의 부족은 '달리다', 신체나 표정이 부어오르는 상태는 '붓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솥에는 안치고, 양념은 조리고, 실력은 달리고, 얼굴은 붓는다.

NoteBase

문 2.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풀다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꾸다.	㉡
	긴장된 분위기나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하다.	㉢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	㉣

① ㉠: 나는 형이 낸 수수께끼를 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② ㉡: 선생님은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 설명하셨다.

③ ㉢: 막내도 잘못을 뉘우치니, 아버지도 그만 얼굴을 푸세요.

④ ㉣: 경찰을 풀어서 행방불명자를 백방으로 찾으려 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의어 '풀다'가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풀다'는 문제를 해결하다,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다, 긴장된 상태를 누그러뜨리다, 금지·제한을 해제하다 등 여러 뜻으로 쓰인다. 같은 단어라도 목적어와 앞뒤 문맥에 따라 뜻을 구별한다.
'수수께끼를 풀다'는 해결하다, '말을 풀어 설명하다'는 알기 쉽게 바꾸다, '얼굴을 풀다'는 긴장을 누그러뜨리다, '경찰을 풀다'는 경찰을 보내어 활동하게 하다의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수께끼를 풀다'의 '풀다'는 모르는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한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 ㄱ과 맞는다.
② O: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 설명하다'의 '풀다'는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꾼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 ㄴ과 맞는다.
③ O: '얼굴을 풀다'의 '풀다'는 굳거나 긴장된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다. 제시된 의미 ㄷ과 맞는다.
④ X: '경찰을 풀어서'의 '풀다'는 경찰을 보내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한다는 뜻이다. ㄹ의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와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 → 올바르게는 '사람을 보내어 활동하게 하다'이다. ㄹ의 의미는 '통행금지를 풀다'처럼 쓰일 때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문장 자체가 어색하지 않아 ㄹ의 뜻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경찰을 풀다'에서 목적어는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제한을 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을 현장에 보내어 활동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의어는 '무엇을 풀다'인지 목적어를 먼저 확인한다. 문제·수수께끼이면 해결, 말이면 쉽게 설명, 표정이면 긴장 완화, 금지·제한이면 해제, 사람이면 보내어 활동하게 함의 뜻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제는 해결하고, 말은 쉽게 하고, 표정은 누그러뜨리고, 금지는 해제하고, 사람은 보내어 활동하게 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예선이 있기 전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감독의 교체 등으로 대표팀 내부가 어수선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여 조 1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올림픽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우리 대표팀은 국민들의 찬사와 응원 속에 메달권을 향해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며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① 走馬加鞭
② 走馬看山
③ 切齒腐心
④ 見蚊拔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메달을 위해 훈련 강도를 더 높이는 모습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走馬加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으로, 잘되어 가는 일에 더욱 힘을 보탬을 이른다.
走馬看山은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뜻으로, 사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강 훑어봄을 이른다.
切齒腐心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는 뜻으로, 몹시 분하게 여김을 이른다.
見蚊拔劍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을 씀을 이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 1위로 본선행을 결정한 뒤에도 메달을 목표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 가므로, 잘되는 일에 힘을 더하는 走馬加鞭과 맞는다.
② X. ②의 '走馬看山'은 대강 훑어보는 태도를 뜻하므로 꾸준히 훈련하는 모습과 맞지 않는다. 알맞게는 '走馬加鞭'이다.
③ X. ③의 '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이는 마음을 뜻한다. 글에는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나타나므로, 알맞게는 '走馬加鞭'이다.
④ X. ④의 '見蚊拔劍'은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대응함을 뜻한다. 대표팀의 훈련 강화는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한 노력이며 과잉 대응이 아니므로, 알맞게는 '走馬加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더 강도 높은 훈련’만 보고 무조건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단하면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④는 하찮은 대상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경우이고, 이 글의 훈련 강화는 이미 좋은 흐름을 더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황에 이미 성과나 좋은 흐름이 있고 그것을 더 높이기 위해 힘을 보태면 走馬加鞭을 판단한다. 대강 봄, 분함, 사소한 일에 대한 과잉 대응의 단서가 있는지도 함께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 잘되는 일에 힘을 더한다 = 走馬加鞭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은 우리의 전통 건축 문화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이야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져서 내가 살 집을 이런저런 조건을 고려해서 짓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터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고려한 조건은 지리(地理)입니다. 지리는 집을 둘러싼 전체적인 지형 곧, 산과 물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둘째가 생리(生利), 곧 살기에 얼마나 편리하냐이고 셋째가 인심(人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수(山水), 곧 경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던 것이지요.

①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모방해서 거주 공간을 지었군.

②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

③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거주의 편리성을 추구했군.

④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서로 경쟁하는 요소들로 생각했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연에서 설명한 전통 건축의 집터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조상들이 자연 조건과 사람의 생활 조건을 함께 고려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리는 집터를 둘러싼 지형과 산·물의 조화를 살피는 자연 조건이다. 생리는 생활의 편리함을 살피는 생활 조건이다. 인심은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를 살피는 조건이고, 산수는 경관을 살피는 조건이다. 전통 건축의 집터 선정은 이 조건들을 종합하여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연을 모방해서'가 틀린 표현이다. 강연은 자연을 그대로 본뜨었다고 하지 않고,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집터를 골랐다고 설명한다. 틀린 표현 → 자연을 모방해서 / 올바르게는 자연 조건과 조화를 이루도록이다.

② O: 지리와 산수는 자연 환경을, 생리와 인심은 사람의 생활과 관계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조상들이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다는 반응이 강연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와 '거주의 편리성만을 추구했다'가 틀린 표현이다. 강연의 핵심은 자연을 바꾸어 이용한 데 있지 않고 자연 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으며, 편리성은 생리라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이다. 틀린 표현 →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거주의 편리성을 추구했다 / 올바르게는 자연과의 조화 및 생활·인심·경관을 함께 고려했다이다.

④ X: '서로 경쟁하는 요소'가 틀린 표현이다. 지리·생리·인심·산수는 어느 하나를 겨루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집터를 정할 때 함께 살피는 기준이다. 틀린 표현 → 서로 경쟁하는 요소 / 올바르게는 서로 보완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모방', '적극적 변용'처럼 자연에 대한 태도를 지나치게 바꾸어 놓는다. 강연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본뜬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 조건과 조화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④는 네 기준을 '경쟁' 관계로 바꾸었지만, 강연에서는 집터 선정 때 차례로 살피는 종합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연의 핵심어를 기준별로 나누어 확인한다. 지리·산수는 자연 환경, 생리·인심은 사람의 생활과 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는 선택지를 고른다. '모방', '변용', '경쟁', '오직'처럼 원문에 없는 강한 표현은 우선 경계한다.

암기 포인트

집터 선정의 네 기준: 지리·생리·인심·산수. 자연과 사람의 조화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흔 손에 막ᄃᆡ 잡고 ᄯᅩ 흔 손에 가싀 쥐고
> 늙ᄂᆞᆫ 길 가싀로 막고 오ᄂᆞᆫ 백발(白髮) 막ᄃᆡ로 치려터니
> 백발(白髮)이 제 몬져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
> – 우탁 –

①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어 운명은 거부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의인화·해학의 표현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조적 태도는 대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 시조는 화자가 늙음을 막고 백발을 쫓으려 하나 백발이 지름길로 먼저 온다고 말하며, 노화의 불가피성을 자신의 처지에 기대어 익살스럽게 드러낸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의식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해학은 심각하거나 슬픈 현실을 익살과 웃음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생의 덧없음'은 드러나지만 이를 관조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화자는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 한다는 행동을 통해 늙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개인적 심정과 탄식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 '관조적으로' → 올바르게는 '주관적·해학적으로'이다.
② O: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하여, 백발에 사람처럼 아는 능력과 행동을 부여하였다. 의인화를 통해 늙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③ O: 늙음은 막거나 쫓아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데, 화자는 막대와 가시를 든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이를 피하려 한다. 결국 백발이 먼저 온다는 결말에서 자연의 섭리를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④ O: 화자가 늙음을 막으려 해도 백발이 지름길로 먼저 온다는 내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노화와 운명을 거부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주제만 보고 관조적 태도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화자의 막대·가시를 든 행동과 '오더라'의 결말에는 늙음을 피하고 싶은 절실함과 익살이 나타나므로, 객관적 관찰인 관조와는 거리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가 대상과 거리를 두고 차분히 바라보면 관조적 태도이고, 자신의 처지를 직접 드러내며 탄식·소망·익살을 보이면 주관적 태도이다. 사람이 아닌 대상이 알고 오거나 행동하면 의인법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백발이 '알고 지름길로 온다'는 의인화이며, 늙음을 막으려는 익살 속에 노화의 불가피성이 드러난다.

NoteBase

문 6. ㉠~㉣ 중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ᄂᆞᆫ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ᄒᆞ야
>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를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 수ᄇᆡ 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ᅳᄅᆞ미니라
>
> —『훈민정음언해』—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훈민정음 언해』의 옛말 문장에서 표시된 말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어는 서술하는 대상이며, 주격 조사 '이/가'가 붙거나 문맥상 '누가·무엇이'에 해당한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며,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무엇을'에 해당한다.
ㄱ '百姓이', ㄴ '배', ㄹ '내'는 각각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이고, ㄷ '제 뜻을'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ㄱ: O.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에서 '百姓이'는 '누가'에 해당하고 주격 조사 '이'가 붙은 주어이다.
② ㄴ: O.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는 현대어로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정도이다. '배'는 '무엇이 있어도'에 해당하여 주어이다.
③ ㄷ: X. '제 뜻을'은 '무엇을 펴지 못한다'에 해당하고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목적어이다. 주어라는 판단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목적어이다.
④ ㄹ: O. '내 이를 爲하야…'에서 '내'는 '누가'에 해당하여 주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의 '배'는 의존 명사라서 문장 성분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뒤의 '이셔도(있어도)'에 대해 '무엇이 있어도'라고 물을 수 있으므로 주어이다. 반면 ㄷ은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임이 분명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옛말에서도 조사를 먼저 확인하고 서술어에 '누가·무엇이', '무엇을'을 차례로 물어 문장 성분을 판별한다.
'이/가'는 주어, '을/를'은 목적어를 가리는 핵심 단서가 된다.

암기 포인트

'이/가'는 주어, '을/를'은 목적어이며, 의존 명사도 서술어의 주체가 되면 주어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쳤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① 문명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② 자연의 실재감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③ 텔레비전을 끄기 전후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④ 문명의 이기에 가려졌던 자연에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서 문명과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공감각적 표현, 시상 전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호혜적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이다. 이 시에서 텔레비전은 풀벌레의 작은 소리를 가리고 되돌아가게 하는 문명의 기기로, 자연과 문명이 서로 이롭게 교류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한 감각의 대상을 다른 감각의 말로 표현하여 감각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에서는 시각적 별빛이 청각적 벌레 소리에 더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명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브라운관의 빛과 소음은 작은 울음소리를 막고 되돌아가게 한다. 틀린 표현은 '호혜적 관계'이며, 올바르게는 문명에 가려진 자연의 소리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② O: 벌레의 울음소리에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라고 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대상에 결합한다. 이를 통해 밤의 자연이 생생하게 부각된다.
③ O: 텔레비전을 끈 뒤에는 풀벌레 소리가 방 안과 귓속으로 들어오지만, 텔레비전이 켜진 동안에는 브라운관의 현란한 빛과 소음이 눈과 귀를 채운다. 텔레비전을 끄기 전후의 상황이 대비된다.
④ O: 화자는 풀벌레의 작은 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지나는 통로,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이는 텔레비전이라는 문명 기기에 가려졌던 미세한 자연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화자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점을 '문명과 자연의 호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화자의 관심은 자연을 회복하려는 인식일 뿐, 텔레비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명과 자연의 관계를 묻는 선지에서는 문명 기기가 자연을 돕는지, 자연의 소리를 가리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감각 표현은 '별빛' 같은 시각어가 '소리' 같은 청각 대상에 붙는지를 살펴 공감각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텔레비전은 자연의 작은 소리를 가리고, 별빛은 그 소리를 환하고 낭랑하게 만든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깔을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질을 찾어왔능가?"

꼭 울어 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허시고 따른 식구덜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헐 디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헐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그서 이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겄능가. 자꼬 이러며는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겄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혀야지. 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매나 가슴이 미여지겄능가?"

- 윤흥길, 「장마」에서 -

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
②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산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다.
③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④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안심시키려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단순한 짐승으로 보지 않고, 집안일을 걱정하여 찾아온 사람처럼 여긴다. 따라서 합장하고 말을 건네며, 노친 양반과 식구들의 안부를 전해 안심시키려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외할머니의 호통은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 주려는 말을 듣고 크게 웃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친다' → '그 말을 비웃으며 웃는 사람에게 호통친다'가 알맞다.
② O.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집안 식구의 안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는 구렁이를 사람처럼 여기며 말을 건네는 태도에 해당한다.
③ X.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혐오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안일을 걱정해 찾아온 존재로 여기며 안부를 전해 준다.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쫓아내려 한다' → '사람처럼 여기며 안심시켜 돌아가도록 권한다'가 알맞다.
④ X. 외할머니는 음식을 내어 주지 않는다. 구렁이가 걱정하는 가족의 안부를 말로 전하며 마음을 달래 준다. '음식을 대접한다' → '식구들의 안부를 전해 안심시키려 한다'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외할머니의 호통 대상이 누구인지, ④는 외할머니가 무엇으로 구렁이를 위로하는지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지문에는 야단의 대상이 웃는 사람이고, 위로의 방식은 음식이 아니라 말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화의 상대, 말의 내용, 행동을 함께 확인한다. 이 지문에서는 합장, 안부 전달, 귀가 권유가 모두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는 근거가 된다.

암기 포인트

구렁이에게 합장하고 안부를 전함 → 짐승이 아니라 사람처럼 대함이다.

NoteBase

문 9. ㉠, ㉡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 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법적 제재는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 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정치인들은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또 시민 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겨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① ㉠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③ ㉡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④ ㉡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무 투표제 찬성 측 ㄱ과 반대 측 ㄴ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이 해당 주장의 논증상 필요한 근거를 요구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비판은 상대 주장의 핵심 전제나 인과관계에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에는 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주장자가 반드시 대책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투표 참여자가 늘면 정치인들이 정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투표율 증가와 후보들의 정책 경쟁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를 요구하므로 적절한 비판이다.

② O. ㄱ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전제한다. 제재와 투표율 상승의 연결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므로 적절하다.

③ X. ㄴ은 의무 투표제가 정치인의 안하무인 태도와 국민의 뜻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주장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이지, 부작용의 대책 제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안하무인 태도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이다.

④ O. ㄴ은 현재의 투표율이 대표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이 판단은 ㄴ의 핵심 전제이므로 그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책'까지 요구한 점이 문제이다. 비판은 우선 그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대책 제시는 정책 대안의 완성도를 평가할 때의 요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의 결론을 만든 전제와 인과관계를 찾아 그 근거를 요구하는 비판은 적절하다. 다만 주장자가 하지 않은 일, 예컨대 대안이나 대책의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는 비판은 그 주장의 성격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근거 비판은 전제·인과를 겨냥하고, 부작용 주장에는 대책보다 발생 가능성의 근거를 따진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이 경기의 승리는 노력의 결과(結果)이다.
② 사상 초유(初有)의 사태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다.
③ 그는 수많은 곡절(曲絶)을 겪은 후 대통령이 되었다.
④ 그 모임은 새로운 변화의 서막(序幕)을 올린 사건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뜻은 비슷해도 한자가 다른 동음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곡절'은 일이 순탄하지 않고 굽이쳐 변하는 사정을 뜻한다.

핵심 개념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이나 행위로 인해 생긴 결말이나 성과를 뜻한다. 초유(初有)는 이전에 없던 일이 처음으로 생김을 뜻한다. 곡절(曲折)은 일이 순탄하지 않고 이리저리 뒤얽힌 사정을 뜻하며, 서막(序幕)은 연극의 첫 막 또는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노력의 결과'는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말이라는 뜻이므로 結果가 맞다.
② O. '사상 초유'는 이전에 없던 일이 처음으로 생긴 경우이므로 初有가 맞다.
③ X. 틀린 한자는 '曲絶'이다. '곡절'은 일이 이리저리 꺾이고 순탄하지 않은 사정을 뜻하므로 曲折으로 쓴다. '絶'은 끊어짐의 뜻이다.
④ O. '변화의 서막'은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뜻이므로 序幕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곡절'의 발음만 보고 '끊어짐'을 뜻하는 絶을 넣기 쉽다. 그러나 곡절의 핵심은 일이 '꺾이고 굽이친다'는 뜻이므로 折을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는 문맥의 뜻을 먼저 확인한다. 일이 순탄하지 않아 여러 사정이 생긴다는 뜻이면 '굽을 곡(曲)·꺾을 절(折)'의 曲折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곡절은 '굽고 꺾임'이므로 曲折이다.

NoteBase

문 11.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청소기 관련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Ⅰ. 고객 불만 현황
1. ㉠
2. 인터넷 고객 문의 접수 및 처리 지연
Ⅱ. ㉡
1.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 품질 불량
2. 인터넷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잦은 오류
Ⅲ. ㉢
1. 동종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
2.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 인력 충원
Ⅳ. ㉤
1. 제품에 대한 고객 민원 해결 및 회사 이미지 제고
2. 품질 결함 최소화를 위한 품질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① ㉠: 소음 과다 및 흡입력 미흡
② ㉡: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
③ ㉢: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
④ ㉤: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현황, 원인, 해결 방안,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가 논리적으로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현황은 현재 드러난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고, 원인은 그 문제가 생긴 까닭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해결 방안은 원인을 줄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대책이며,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는 대책 시행 뒤의 결과와 계속 보완할 일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Ⅰ은 '고객 불만 현황'이므로 '소음 과다 및 흡입력 미흡'처럼 고객이 겪는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Ⅱ 아래에는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의 품질 불량과 인터넷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오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ㄴ에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③ X. ㄷ 아래에는 동종 제품 전량 회수·수리·교환,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와 관리 인력 충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틀린 표현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 → 올바르게는 '고객 불만 해소 방안'이다.

④ O. Ⅳ의 첫째 항목은 고객 민원 해결과 회사 이미지 제고라는 기대 효과이고, 둘째 항목은 품질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이라는 향후 과제이므로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관리 인력 충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력 부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문서의 항목은 인력 부족 자체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해결 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ㄷ은 원인·현황이 아니라 방안의 제목이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고서의 각 소항목이 문제의 모습인지, 문제의 원인인지, 실행 대책인지, 시행 뒤의 결과인지부터 구분한다. 회수·수리·교환·최신화·충원처럼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이어지면 해결 방안 항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제는 현황, 까닭은 원인, 행동은 해결 방안, 결과와 보완은 기대 효과·향후 과제이다.

NoteBase

문 12. ㉠을 설명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담배가 해로운데도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은 담배를 마약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과거에는 담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둘째,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안정되어 집중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 이것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니코틴 금단 증상이 해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 더 안정되거나 집중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니코틴 의존에도 있다. 체내에 니코틴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금단 증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등 고통스럽고, 이 고통 때문에 담배를 끊기 어렵다.
넷째, 담배를 피우는 이유에는 습관도 있다. 주위에 재떨이, 라이터, 꽁초 등이 눈에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고, 식후나 술을 마실 때도 습관적으로 담배 생각이 나서 피우게 된다.

① 정의
② 분석
③ 서사
④ 비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이 대상을 어떤 설명 방식으로 풀어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정의는 대상의 뜻이나 본질을 밝혀 설명하는 방식이다. 분석은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을 여러 구성 요소·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서사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여 주는 방식이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의는 '담배' 또는 '흡연'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나 본질로 밝혀야 한다. 이 글은 흡연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흡연 이유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 틀린 표현 '정의' → 올바르게는 '분석'이다.
② O. 글은 흡연 이유를 '멋있고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함', '금단 증상 해소', '니코틴 의존', '습관'의 네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하나의 현상을 원인별로 분해하므로 분석 방식이다.
③ X. 서사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를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 주는 방식이다. 이 글에는 사건의 시간적 전개가 없고, 흡연 이유를 항목별로 분류한 설명이 있다. 틀린 표현 '서사' → 올바르게는 '분석'이다.
④ X.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과 차이점의 기준으로 대조해야 한다. 이 글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일부 언급할 뿐, 두 대상을 대조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비교' → 올바르게는 '분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둘째 이유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언급하므로 비교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금단 증상 해소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내용일 뿐, 두 대상을 공통점·차이점으로 대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중심 대상을 '첫째·둘째·셋째'처럼 원인, 요소, 종류로 쪼개어 제시하면 분석으로 판단한다. 대상의 뜻을 밝히면 정의, 시간 흐름을 보이면 서사, 둘 이상을 대조하면 비교이다.

암기 포인트

대상을 쪼개면 분석, 뜻을 밝히면 정의, 시간을 따라가면 서사, 대조하면 비교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도입했을 때 인쇄업에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인쇄 시설은 자주 교체해야 했고 노동비용과 종잇값도 비쌌을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도 오래 걸렸다. 결국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는데 그들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 사업을 장악하였다. 책은 생산 원가의 2~3배의 이윤을 남기는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필사본의 수량적 한계를 뛰어넘은 책은 상인들의 교역로를 따라 유럽 각지로 퍼져 나갔다. 이 사치품은 수지맞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되었다. 15세기 후반부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이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다. 16세기 들어 인쇄술은 고대 문헌들의 출판을 통해 인문주의의 대의에 공헌했으며, 1517년 이후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① 16세기에는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② 15세기 말 인쇄업은 대금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

③ 유럽의 상인들이 사상의 교환을 위해서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다.

④ 15세기 후반부에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5~16세기 인쇄술의 경제적 성격과 유통·언어·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을 지문의 인과관계에 맞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기 인쇄업은 큰 자본과 긴 회수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대금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
책은 상인의 교역로를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었고, 그 결과 사상의 교환도 촉진되었다.
15세기 후반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였으므로 라틴어 종교 서적이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1517년 이후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므로, 16세기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인쇄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고 회수 기간도 길어 15세기 말 자금을 빌려 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 이는 대금업자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뜻이다.

③ O: 상인들은 경제적 목적에서 책을 유통했고, 사상의 교환은 그 유통 과정에서 촉진된 결과이다. 따라서 사상의 교환을 위해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이다. 실제로는 15세기 후반에 라틴어가 이미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이 인쇄의 주류를 이루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원인과 결과를 바꾸었다. 지문에서는 라틴어의 중요성이 라틴어 종교 서적 인쇄의 주류화 원인이지, 인쇄술이 라틴어를 가장 중요한 언어로 만든 원인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때문에', '따라', '그 과정에서'와 같은 연결 표현을 중심으로 원인·목적·결과를 구분한다. 특히 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원인으로 바꾼 선지는 지문과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라틴어의 중요성 → 라틴어 종교 서적 인쇄의 주류화, 책의 상업 유통 → 사상 교환의 촉진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서양의 드래건(dragon)은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이었지만, 동양의 용(龍)은 신령스러움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물속에서도 지낼 수 있으며,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이 없다.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주로 바다 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던 데 비해,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 이는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바,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風浪)의 원인으로,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風雨)의 원인으로 여긴 까닭이다. 자연히 어부는 '공포', 농부는 '은혜'라는 대립적 관념을 용의 신령함에 결부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농업 비중이 큰 까닭에 대체로 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보다는 상서로운 존재로 여겼다.

①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 관념이었다.

② 육지 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

③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이다.

④ 드래건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의 모습과 거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경 중심적 사고란 인간이 처한 생활 환경에 따라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사고이다. 바닷가 어부는 풍랑을 두려워하여 용을 바다 속 용궁과 연결하고, 육지 농부는 풍우의 은혜를 기대하여 용을 하늘의 구름과 연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바닷가 어부가 용을 주로 바다 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름'과 '용궁'이 어부에게 대립적 관념이었다는 내용은 없다. 틀린 표현은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 관념이었다이다. 올바르게는 어부는 용을 바다 속 용궁과 관련지어 생각했다고 해야 한다.

② O: 지문은 용이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는 걷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육지 사람들은 용이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으므로,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는 설명은 지문 내용과 부합한다.

③ X: 풍랑은 어부에게 고깃배를 위협하는 원인이고, 풍우는 농부에게 곡식을 자라게 하는 원인이다. 틀린 표현은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풍랑은 어부에게 공포의 원인이고 풍우는 농부에게 은혜의 원인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서양의 드래건은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으로 제시되었을 뿐,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한 적은 없다. 오히려 지문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날개 없이도 나는 동양의 용을 대비한다. 틀린 표현은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서양의 드래건은 날개 달린 존재로 제시되며,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은 동양 용의 특징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어부의 용궁 인식에 지문에 없는 '구름과의 대립'을 덧붙인 선지이다. ③은 풍랑과 풍우에 대한 평가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서롭다고 일반화한 선지이며, ④는 '날개 없이도 난다'는 동양 용의 특징을 서양 드래건의 비행 불가능으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 이해 선지는 주체, 장소, 평가처럼 핵심 정보를 나누어 대조한다. 지문에 없는 관계를 추가하거나 한 집단의 평가를 다른 집단까지 일반화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어부에게 용은 풍랑의 공포와 바다 용궁, 농부에게 용은 풍우의 은혜와 하늘 구름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아!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에 얼굴을 단장하던 일이 마치 엊그제 같다. 그때 나는 막 여덟 살이었는데, 발랑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다가 새신랑의 말을 흉내 내 더듬거리며 점잖은 어투로 말을 하니, 누님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다 그만 빗을 내 이마에 떨어뜨렸다. 나는 골이 나 울면서 분에다 먹을 섞고 침을 발라 거울을 더럽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자그만 오리 모양의 노리개와 금으로 만든 벌 모양의 노리개를 꺼내 나에게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스물여덟 해 전의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銘旌)이 펄럭이고 배 그림자는 아득히 흘러가는데, 강굽이에 이르자 그만 나무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 찐 머리 같았고, 강물 빛은 당시의 거울 같았으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그 옛날 누님이 빗을 떨어뜨리던 걸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 박지원, 「큰누님 박씨 묘지명」에서 —

※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① 자연물을 통해 누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② 누님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겹침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④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재의 장례 행렬을 보며 과거 누님의 시집가던 날을 회상하는 서술 방식과, 자연물을 통해 누님을 떠올리는 표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상은 현재의 계기로 과거 일을 떠올려 현재의 감정을 깊게 하는 서술 방식이다. 자연물의 감정 이입은 산·강물·달 같은 대상에 인물의 모습이나 화자의 정서를 겹쳐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글의 과거 장면은 누님의 결혼을 기뻐하는 장면이 아니라, 누님과 화자가 나눈 어린 시절의 애틋한 추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재 화자는 산의 검푸른 빛을 누님의 시집가던 날의 쪽 찐 머리에, 강물 빛을 당시의 거울에, 새벽달을 누님의 눈썹에 비유한다. 자연물을 통해 누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② O: 명정이 단 배가 강굽이 뒤로 사라지는 장면은 누님의 죽음과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회상에는 누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③ O: 현재의 장례 행렬을 바라보다가 누님의 시집가던 날과 그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현재 장면과 과거 장면을 겹쳐 상실감을 나타낸다.

④ X: 틀린 표현은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대조'이다. 과거의 시집가던 날에는 화자가 울고 누님이 달래 주는 애틋한 추억이 제시될 뿐, 결혼에 대한 화자의 기쁨이 죽음의 슬픔과 대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과거의 누님과의 추억을 현재의 사별 장면에 겹쳐 슬픔과 그리움을 심화한다고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시집가던 날'이라는 말만 보고 결혼의 기쁨을 단정하게 하는 함정이다. 본문에서 화자는 그날 누님을 놀려 울었고, 누님은 노리개를 주며 달랬다. 이 장면의 핵심 정서는 기쁨의 표출이 아니라 남매 사이의 정과 현재의 상실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 장면 뒤에 과거 회상이 나오면 두 장면의 시간 대비와 정서적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과거 사건의 명칭만으로 정서를 단정하지 않고, 화자가 실제로 보인 행동과 서술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례의 현재 + 시집가던 날의 회상 = 기쁨·슬픔의 대조가 아니라 누님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의 심화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대 로마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21세였다. 아동기를 넘긴 성인은 보통 70▨80세 정도 살았지만 출생아의 1/3이 1세 전에, 그 이후 살아남은 아이의 절반이 10세 전에 사망했다. 이렇게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를 밝혀 치료의 길을 연 사람은 파스퇴르였다.

파스퇴르는 1861년 미생물이 활동한 결과로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이후 음식물의 발효나 부패가 공기 중의 미생물 때문에 일어남을 증명했다. 이는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 음식물을 발효·부패시킨다는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1863년에는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인 '파스퇴리제이션(pasteurization)'을 발견했다. 이것은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우유의 경우 밀폐한 채로 63▨65°C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살균법이다.

이러한 연구에 이어 파스퇴르는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치료법도 제시하였다. 광견병, 탄저병 등에 대한 연구는 그의 큰 업적으로 남아 있다.

①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 한 원인이었다.

② 파스퇴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발생설을 부인하였다.

③ 끓는점 이하로 가열하는 파스퇴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인다.

④ 파스퇴르의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기여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추론할 때, 원인·결과와 표현의 방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론은 글에 직접 제시된 사실이나 그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높은 아동 사망률의 원인이 미생물성 질병이고, 파스퇴리제이션은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고대 로마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까닭으로 영아와 아동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이 제시된다. 그 높은 아동 사망률은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② O: 파스퇴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가 공기 중 미생물 때문에 일어남을 증명하여, 음식물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다는 자연발생설을 반박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맛과 질감을 높인다'이다. 파스퇴리제이션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이다.

④ O: 파스퇴르는 미생물이 사람과 가축의 질병 원인임을 밝히고 백신과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질병으로 죽는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살균의 효과를 '맛과 질감의 향상'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글은 맛과 질감을 좋게 만든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문 추론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확인한 뒤, 선지가 원문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에서 '높인다'처럼 바꾸지 않았는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파스퇴리제이션은 저온 장시간 가열 살균이며, 맛·질감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월영암에 사는 탁대사가 냇물에 몸을 씻고 바위 위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때 하루 종일 먹이를 얻지 못하고 굶은 호랑이가 무슨 먹잇감이 없나 하고 찾다가, 알몸의 사람이 오똑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먹음직스러워 감격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그대로 먹으면 감동이 적다고 생각하고, 산 뒤편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 머리를 들어 공중을 향해 크게 웃기도 하고, 앞발을 들어 허공에 휘젓기도 하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소리쳐 웃기도 했다. 한참 동안 이러고 나오니, 이미 날이 저물고 반석 위의 중은 벌써 돌아가고 없었다. 호랑이의 웃음이여,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나) 봉황(鳳凰)의 생일잔치에 온갖 새들이 다 와서 축하하는데, 박쥐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봉황이 박쥐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내 밑에 있는 새이면서 왜 그렇게 방자하냐?” 하고 문책했다. 이에 박쥐는 “나는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 무리이니 어찌 새인 당신에게 하례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뒤에 기린(麒麟)의 생일잔치에 모든 짐승이 와서 하례했는데, 역시 박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린이 불러 꾸짖으니 박쥐는, “나는 날개가 있어 새의 무리이니 짐승인 당신에게 어찌 축하하러 가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세상에서 일을 피해 교묘하게 면하는 사람이여, 참으로 ‘박쥐의 일’이라 하겠구나.

① 화자의 말을 통해 대상을 조소하고 있다.

② 일화를 통해 대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④ 우화적 설정을 통해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우화에서 공통으로 쓰인 풍자 방식과 표현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부여하여 인간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글이다. 조소는 대상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태도이고, 일화는 짧은 사건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의미를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반어는 겉으로 한 말과 실제 뜻이 서로 반대가 되게 하는 표현이다. 두 글은 우화적 사건과 화자의 논평으로 대상을 비판하지만, 실제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반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화자는 먹잇감을 놓친 호랑이에게 '호랑이의 웃음이여,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라고 하여 조소한다. (나)의 화자도 일을 피해 교묘하게 변하는 사람을 '박쥐의 일'이라고 하여 비웃는다.
② O: (가)는 숫양의 외양을 비웃다가 먹잇감을 잃는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나)는 새와 짐승 어느 쪽에도 속하려 하는 박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일화로 드러낸다.
③ X: '반어적 표현'이 틀린 표현이다. 두 글의 비판은 동물을 내세운 우화적 설정과 화자의 직접적 논평·비유에서 이루어진다. 겉말과 속뜻을 반대로 하는 반어가 두 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④ O: 호랑이·숫양·박쥐·봉황·기린 같은 동물에게 생각하고 말하며 생일을 축하받는 인간의 모습을 부여하였으므로 우화적 설정을 통해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가)의 '웃음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호랑이의 처지를 비웃는 표현이지만, 말의 표면 뜻과 실제 뜻이 정반대가 되는 반어는 아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나 말놀이를 곧바로 반어로 판단하면 ③에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점 문제에서는 두 글에 모두 있는 표현 방식을 각각 확인한다. 동물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우화와 의인화, 화자가 대상을 낮추어 비웃으면 조소, 겉뜻과 실제 뜻이 반대일 때만 반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물로 인간을 비판하면 우화, 비웃으면 조소, 겉뜻과 속뜻이 반대여야 반어이다.

NoteBase

문 18. ㉠~㉣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색-연필[생년필]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 ㉠
예)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 [붙임 1] '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
예) 서울-역[서울력/서울녁]
○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예) 잘 입다[잘립따]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
예) 3.1절[사밀쩔]

① ㉠: 혼합약
② ㉡: 휘발유
③ ㉢: 열여덟
④ ㉣: 등용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ㄴ 첨가 원칙, ㄹ 받침 뒤의 발음, 두 단어를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그리고 ㄴ 첨가를 하지 않는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파생어에서 앞말 끝이 자음이고 뒷말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이면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ㄹ 받침 뒤에 첨가된 ㄴ은 ㄹ로 발음된다. 두 단어를 한 마디로 이어 발음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일부 단어는 ㄴ 첨가를 허용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혼합약’은 혼합+약에서 ㄴ이 첨가되는 원칙적 사례로 [혼:함냑]으로 발음한다. ㄱ의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도 발음할 수 있는 말’의 예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ㄱ: 혼합약’이며, 올바르게는 ㄱ의 예로 ‘야금야금’처럼 ㄴ 첨가 발음과 표기대로의 발음이 모두 가능한 말이 와야 한다.

② O — ‘휘발유’는 휘발+유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는 말이다. 앞말의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은 ㄹ로 발음되므로 [휘발류]가 되어 ㄴ의 설명에 맞는다.

③ O — ‘열여덟’은 ‘열’과 ‘여덟’을 한 마디로 이어 발음한 경우로, [열려덜]처럼 발음한다. 두 단어를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제29항을 적용한다는 ㄷ의 설명에 맞는다.

④ O — ‘등용문’은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 예외에 속하며 [등용문]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ㄹ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혼합약’에 ㄴ 첨가가 일어난다는 사실만 보고 ㄱ의 예외 규정에 넣기 쉽다. 그러나 ‘혼합약’은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ㄴ 첨가 원칙이 적용되는 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뒷말 첫음절이 이·야·여·요·유인지 확인하고 ㄴ 첨가 원칙을 적용한다. 이어서 ㄹ 받침 뒤인지, 한 마디로 이어 발음한 경우인지, 또는 규정에 따로 제시된 예외인지 차례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혼합약은 원칙대로 [혼:함냑], 휘발유는 ㄹ로 [휘발류], 등용문은 예외로 [등용문]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페가수스는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겠지?
을: '페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갑: '페가수스'라는 단어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존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돼.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인 것이지. 그러니 페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페가수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의미를 지니겠어?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을: 단어 '로물루스'를 생각해 봐. 이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記述語)야. '자기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어떤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기술의 축약어일 뿐이란 거지. 만약 이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는 문제도 되지 않았을 거야.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거든. 실존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이름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야.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인 거야.

①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군.
②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는군.
③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을은 '페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군.
④ 갑과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려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한다고 보는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이름'으로 볼 것인지, '축약된 기술어'로 볼 것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름은 특정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며, 갑과 을은 이름이라면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한다고 본다. 축약된 기술어는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행적을 묶어 서술하는 표현이다. 을은 '페가수스'와 같이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어의 축약형이라고 본다.
갑은 모든 단어를 이름으로 보므로 '페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어떻게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모든 단어를 이름으로 본다고 말할 뿐,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갑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도 이름이라면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본다.
② O.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며, 그러한 단어를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라고 설명한다.
③ O.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을은 여러 성질을 묶은 축약된 기술어로 본다.
④ O. 갑은 모든 이름이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고, 을도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한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갑의 '모든 단어는 이름'이라는 주장에 을의 '축약된 기술어'라는 설명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갑은 축약된 기술어의 성격이나 지시 가능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의 각 발화자가 인정한 표현의 종류와 그 주장 범위를 분리해 확인한다. 한 인물이 언급하지 않은 개념이나 상대방의 설명을 그 인물의 견해로 돌린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갑: 모든 단어는 이름. 을: 비실존 대상 표현은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론 X에 따르면, 'A가 B의 원인이다.'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예를 들어 '기온이 낮아진 것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원인이다.'는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이론 X에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가령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상황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기온이 낮아졌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보기>
ㄱ.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ㄴ.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ㄷ.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론 X의 반사실적 인과관계 판단, 즉 A가 없을 때 B도 없는 상황이 실제 A·B 발생 사실에 더 유사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론 X에서 ‘A가 B의 원인이다’는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실제로 A와 B가 일어난 경우, A가 없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도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실제 사실에 더 유사하면 A는 B의 원인이다.
원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위의 유사성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두 상황의 유사성 순서가 반드시 반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보기 판단

ㄱ O.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면 이론 X에 따라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폐암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사실 조건이 성립한다.
ㄴ O. 실제 사실을 ‘갑이 홈런을 치고 팀이 승리함’으로 놓으면, ‘홈런을 치지 않고도 승리함’보다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하지도 않음’이 실제 사실에 더 유사하다는 판단은 홈런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이론 X의 기준과 일치한다.
ㄷ X.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곧바로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이며, 올바르게는 두 상황의 유사성 비교가 원인일 때와 같은 방향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만 적절하다.
② X. ㄷ이 부적절하다. 틀린 구성은 ‘ㄱ, ㄷ’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③ X. ㄷ이 부적절하고 ㄱ은 적절하다. 틀린 구성은 ‘ㄴ, ㄷ’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④ X. ㄷ이 부적절하다. 틀린 구성은 ‘ㄱ, ㄴ, ㄷ’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처럼 ‘원인이 아니다’를 ‘A가 없는데도 B가 일어난 상황이 반드시 더 유사하다’로 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이론 X가 제시한 것은 원인일 때의 엄격한 유사성 비교이므로, 그 부정은 비교의 역전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A·B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놓고, A가 없는 두 상황을 비교한다. A도 B도 없는 상황이 더 유사하면 원인 관계이다. 원인 관계가 아니면 그 판단 기준이 성립하지 않을 뿐, 반대쪽 상황이 더 유사하다고 추가로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원인: A가 없으면 B도 없다. 비원인: 그 명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 반드시 반대는 아니다.

NoteBase